인천일보

연천 등 접경지 지자체 'DMZ 특별연합' 구성 속도

김태훈 | 승인 2021.11.10

>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회의 갖고
>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현안 논의

연천군과 경기, 강원 지역 등 접경지역 지자체 DMZ특별연합 구성 작업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연천군전경사진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화상회의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탄소 중립도시 지정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소속 개 시 군 담당 부서장은 특별연합이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태 관광 문화자원의 공동관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접경지역 발전의 전기 轉機 임에 의견을 모았다

군은 탄소 중립도시 지정과 관련해 글로벌 의제화에 따른 정부 탄소 중립 2050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실천적 이행방안 발굴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사업추진이 중요한 만큼 DMZ를 축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통해 탄소 중립도시를 지정,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DMZ 생태환경을 보존·관리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와 1일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 후 초광역협력 준비된 지자체부터 지원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군 관계자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후 실무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DMZ 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이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008년 4월 설립한 단체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훈

김태훈
다른기사 보기